

누굴 위한 재개발?... 길바닥에 나앉은 노인들

광주 임동 환경정비사업 보상금 갈등 속 원주민들 분통 50여명 집회 "보상자리 쫓겨날 처지... 눈앞이 캄캄"

최근 광주 곳곳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턱없이 적은 보상금을 받고 수십년간 살았던 터전에서 쫓겨나는 원주민이 늘고 있다. 개발로 원주민이 쫓겨나는 전형적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다.



■ 임동도시환경정비구역
임동 오거리 북성중 86.360.8㎡ 유동사거리 양동시장 교차로

? 젠트리피케이션
Gentrification. 낙후된 도심이 재개발되면서 토지가격·임대료 상승 등으로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현상.

보상금으로 거처를 마련하기에도 벽한 고령 노인들의 경우 수십년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이웃과 단절하는 이중고도 겪고 있다. 재개발이 마을공동체를 해체하는 주범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도심에서 광범위하게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서민 지원 정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9일 오전 광주시 북구 유동사거리에서는 33도를 웃도는 땀방 아래 70~80대 노인 50여명이 모여 집회를 열고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임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 지역에 3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었다.

이들은 "누구를 위한 재개발이나, '보상 금액 공개하라', '서민들의 재산권 보장하라'라고 쓴 팻말을 들고 민요 '아리랑'에 맞춰 (평당)보상금액 700만원을 달라"고 촉구했다. 대부분 고령인 참석자들은 "재개발 때문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이재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임동·유동 일대는 도시가스도 들어오지 않는 낙후한 지역으로, 독거노인이 주로 거주하고 있다"면서 "지난 2008년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



19일 오전 광주시 북구 유동사거리에서 '임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 지역에 살고 있는 70~80대 노인들이 집회를 열어 적절한 토지 수용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추정 보상금(평당 270만~320만원)을 전혀 듣고 눈앞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소 평당 700만원은 받아야 광주에서 전셋집 한 채라도 구할 수 있다"면서 "정든 이웃들과 헤어지는 것도 견디기 힘든데, 낮은 보상금 때문에 옮겨갈 곳도 마땅치 않아 걱정"이라고 푸념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23㎡(7평)에서 33㎡(10평)짜리 소형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예상 보상금(2240만~3200만원)으로는 전셋집조차 얻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한국감정원의 '5월 전국 주택 가격동향'에 따르면 현재 광주 지역 주택(공동·단독주택)의 평균 전세가격은 1

억3092만원이다. 정여평(여·65)씨는 "보상금만으로는 내 집을 헐고 새로 들어설 아파트는 꿈도 못 꾸겠다"며 "주민 대부분 행편이 어려워도 함께 동고동락하며 정답게 살았다. 이제는 다들 흩어질 수밖에 없다"며 울먹였다. 임동에서 30년간 거주한 손정희(80) 할머니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만 주민들이 모여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 2008년 북구 유동 옛 아세아극장 인근 8만6360㎡ 지역(1826명 거주)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지난 2015년 9월 주민들은 '임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고 같은 해 11월 중흥토건·두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북구는 사업시행을 인가했으며, 토지와 건축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중이다. 주민들은 현재 재개발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낮은 보상금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지난 6월 열린 조합총회에서 보상금이 3.3㎡(1평)당 270만~320만원 사이로 책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조합은 현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보상금을 알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북구청에 의뢰해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상금에 대해서는 함부로 언급할 수 없다"며 "일부 주민들이 보상금에 대해

국가배상금 수억 가로챈 어촌계장·수산업자 구속 광주지검 순천지청

어촌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국가배상금 수억원을 가로챈 고흥의 한 어촌계장과 수산업자가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에 합당한 혐의가 있는 이전 어촌계장까지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9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최근 어촌계원들의 동의 없이 국가배상금을 특정 수산업자에게 주고 뒷돈을 받아 챙긴 고흥 A어촌계장 B(58)씨를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또 B씨에게 돈을 건넨 수산업자 C(69)씨도 업무상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앞서 고흥군 각 어촌계는 지난 2005년 고흥만 방조제에서 방류하는 담수로 어장 피해를 입었다며 중앙정부와 고흥군을 상대로 어업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고흥 A어촌계는 12억여 원에 달하는 배상금이 판결됐다. 하지만 A어촌계장 B씨는 이 배상금 가운데 추진비 명목으로 3억5400만 원을 책정해 어촌계 총회를 거치지 않고, 수산업자 C씨에게 주고 그 대가로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업자 C씨는 특히 어장 임대자격 없는데도 A어촌계 어장 3곳을 수십 년간 불법 임대했으며, 배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지만 배상금을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순천지청은 이들 외에도 전 어촌계장 중 2명이 증거인멸을 통해 뇌물을 받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고흥=주각중기자 gju@kwangju.co.kr

중학 동창 1년간 추행·폭행... 무서운 고교생들

성추행 하고 나체사진 찍고 라이터로 머리카락도 태워 SNS 올리고 집단 괴롭힘

가해자 부모가 피해자 부모에 알려 피해 학생은 또다른 학폭 가해자로

"성기를 만지고, 나체사진 찍어 SNS에 올리고, 라이터로 머리카락 태우고..." 광주의 한 남고생이 지난 1년 동안 같은 중학교 출신 동창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광주경찰청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가해자인 A(17·광주 모 고교 1년)군 등 3명은 지난달 말 광주시 광산구 한 모텔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군에게 "함께 샤워하자"라면서 옷을 벗긴 뒤 번갈아가면서 맨몸에 찬물을 끼얹었다. A군 등은 이날 생일 축하파티를 하자면서 B군을 모텔로 불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학생 중 일부는 라이터로 B군의 머리카락을 태우고 나체사진을 찍은 뒤 해당 사진을 SNS에 올렸다. 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가혹행위를 했다. A군 등은 지난 5월 말 B군을 광산구의 한 놀이터로 불러내 놀이기구 기동에 B군을 묶고 바지를 내린 뒤 성기를 만지면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피해자는 지난 1년간 다섯 차례 이상 A군 등으로부터 수시로 집단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가해학생의 폭력은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했다. B군은 올해 A군 등과 어울려 다니면서 같은 중학교 1년 후배인 C군을 불러냈다. B군은 자신을 수시로 괴롭힌 A군 등과 함께 C군의 뺨을 세 차례가량 때렸다. 학교폭력의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된 셈이다. B군은 지난달 말 자신이 다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교내봉사활동(3일) 명령을 받았다. B군은 당시 자의에 의해 때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5년전 집단 성폭행 부실 수사 전남경찰, 징계 절차 착수

경찰은 상습적으로 B군을 괴롭힌 3명 이외에도 폭력에 가담한 가해 학생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피해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예정이다. 광산경찰 관계자는 "B군을 괴롭힌 것을 목격한 가해 학생 부모가 피해자 학생 부모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면서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가해자 중 일부 학생만 불러 조사를 했는데, B군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나머지 가해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A군 등이 저지른 행위가 중학교 때부터 시작된 것인지와 제3의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사실 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부부싸움 말리는 사위 찌른 장인

부부싸움을 말리는 사위를 찌른 장인은 조선희 출신 사위를 찾기에 흥기로 찌른 중대에 빠트린 조선희 출신 장인이 경찰서행. ○19일 나주경찰에 따르면 조선희 출신으로 혼인을 통해 우리나라 영주권을 획득한 A(64)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께 나주시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사위 B(35)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 ○장인과 마찬가지로 혼인을 통해 영주권을 얻은 사위 B씨는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평소 내가 벌여온 돈을 아내가 사위와 딸에게 빼돌리는 듯 해 부부싸움을 하던 중 사위가 잠깐하자, 순간 화를 이기지 못하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 /나주=서용철기자 scy@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본 자연장은 아름기도회에서 운영하는 화원들을 위한 종교시설입니다.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례문화입니다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6-8(2층)
☎ (062) 433-9191